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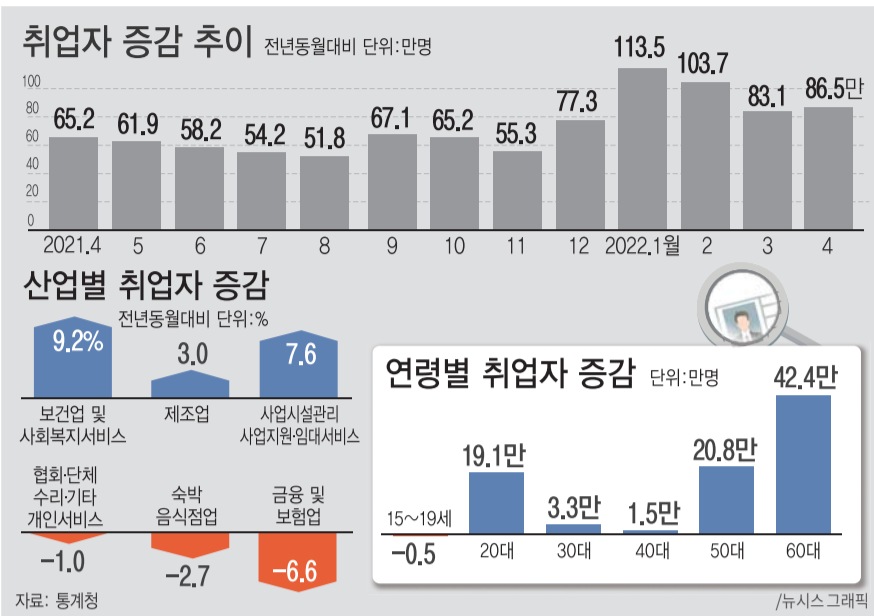
취업자 늘고 실업자 줄었다... 4월 전체 고용률 사상 최대

취업자 86만명 ↑... 동월 최대 증가
60세 이상 취업자 전체 절반 차지
비경제활동 인구 14개월 연속 감소

4월 취업자 수가 86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다만, 취업자의 절반 가량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해 고용의 상당수를 정부의 단기 일자리가 메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물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향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만5000명(3.2%) 늘었다.

취업자는 1년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취업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4000명) 등에서 크게 늘었다. 제조업도 반도체, 석유 등에 힘입어 13만2000명 증가하며 6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비대면으로 점포 수가 줄어든 금융 및 보험업은 취업자가 5만4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도 2만7000명 감소하며 여전

히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통계청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다음 달부터 고용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42만4000명 증가했는데 전체 취업자 비율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50대는 20만8000명, 20대 19만1000명, 30대 3만3000명, 40대 1만5000명 등으로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2만9000명, 임시근로자는 4만8000명 각각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11만7000명 줄었다.

또,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9000명 각각 증가했다.

전체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실업률은 3.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낮았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호조세와 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7만6000명 감소하며 14개월 연속 하향세를 나타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5만2000명, 구직단념자는 20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고용은 일시적 증가 요인이 사라지며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봉쇄 조치, 물가 상승세 지속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요소들이 있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尹 정부 내각 취임

이종섭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이종호 "과학기술 5대 강국 만들어 갈 것"

(국방부 장관)

(과기부 장관)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 참석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나자,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시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상황 관련 변함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이 11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국방부

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서 그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전부터 군국의 군기를 바로 잡겠다고 언급해 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한화진 "국제 환경규범 선제적 대응"

(환경부 장관)

"환경 정책 한 단계 더 도약"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은 11일 취임하며 "탄소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국제 환경규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국제적·사회적 격변에 대응해 환경 정책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토대로 과학기술과 정책소통, 국제협력, 환



경행진 진화 등 4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탄소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환경규범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며 "마지못해 끌려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피해와 소외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시대에 걸맞은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담대한 미래를 함께 꿈꾸며 함께 만들겠습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11일 열린 취임사를 통해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원 하나 없는 최빈국에서 추격형 모델을 통해 과학기술 입국의 기틀을 세우고 산업화와 정보화에 성공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는 지금 기술 대변혁



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되며 경제·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날이 격화되며, 과학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가 됐다"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 대변혁의 갈림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모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창조하는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이정식 "산업재해 줄일 로드맵 조속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등 다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1일 취임하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평소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다"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성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도 다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타이어뱅크, 대리점주에 재고 감가손실액 떠넘겨

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결정

타이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타이어뱅크가 이 사건 발생 기간 중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뺀 금액은 38억 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 불가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